



전주대 등, 천원의 아침밥 배식 봉사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5일 학생회관 및 스타센터 푸드코트에서 국제레파리클럽 3670지구와 함께 천원의 아침밥 배식 봉사 및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배식 봉사 및 기부금 전달식은 국제레파리클럽 3670지구 이기운 총재, 민경준 사무총장, 배창현 재무총장과 각 지역대표 및 회원 18명과 박진배 총장 및 처장단과 김주형 부총학생 회장 등이 참석했다. 천원의 아침밥 배식 봉사 및 기부금 전달식은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가치 있는 대학 생활을 보내고, 든든히 아침밥을 챙기는 좋은 환경을 더 많은 재학생들이 혜택을 받아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이기운 총재는 "미래의 주역인 우리 대학생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그들이 성장해 또 다른 세상의 희망을 전하는 인재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박진배 총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아침밥을 위해 국제레파리클럽 3670지구의 기부금 전달에 감사드리며, 학생들의 든든한 아침밥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국제레파리클럽 3670지구는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가 모인 국제봉사단체로 최근 추석맞이 소의계층 물품 나눔 심리지원 물품 후원, 짬버리 대원 대상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장은성기자



남원시보건소, 가족사진 공모전 당선작 선정

남원시보건소는 지난 4일 제7회 아이가 있어 행복한 남원시 가족사진 공모전 당선작을 발표하고 시상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가족이 함께 행복했던 순간을 담은 총 190점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남원시 사진작가협회와 함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총20점(행복상 1, 가족상 2, 화목상 7, 미소상 10)을 선정했다. 특히 행복상을 수상한 가족은 4년전에 아이와 함께 귀촌해 남원의 명소를 찾아보는 즐거움을 누리던 중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가족상을 수상한 가족은 한복문화주간에 한복 체험 자원봉사에서 찍은 가족사진이 수상의 기쁨을 주었으며, 수상자는 앞으로 더 많은 자원봉사를 다짐하기도 했다. 이번에 당선된 20점의 작품은 세계드론제전 흥부제 등에서 남원시 출신에 대한 인식개선과 출생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모자보건팀(620-7982)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시보건소 관계자는 "자녀와 함께 즐거웠던 순간을 담은 가족사진 공모전을 통해 가족을 이루는 것이 행복한 일임을 인식하는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진안군, 전북장애인체육대회 유공자 시상식

진안군은 지난 4일 군수실에서 제7회 전라북도장애인체육대회(이하 장애인도민체전)에서 입상한 단체 및 선수를 대상으로 유공자 시상식을 열었다. 지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장애인도민체전에서 진안군은 수영 종합1위, 파크골프 종합 1위, 사격 단체전 3위, 육상 미미화(포환, 원반던지기)2관왕 등 뛰어난 성적을 토대로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파크골프협회(종합 우승), 수영연맹(종합 우승), 사격연맹(단체전 3위), 육상 미미화 선수2관왕)가 참석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전춘성 진안군장애인체육회장은 "선수분들의 노력 덕분에 이번 장애인도민체전에서 진안군이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둘 수 있었으며, 내년 대회에도 진안군이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 증진, 정서적 안정 등 장애인의 자변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사회적 가치 확산 위해 공헌활동 지속되길”

전북도, 기계설비건설협회 등과 사회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 위한 협약

전북도는 독거노인을 비롯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가스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협회와 함께 설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5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김영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공사협회회장, 유제영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장, 김동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사회취약계층 가스시설 지원 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전라북도 사회 취약계층 도민의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한 복지인프라 구축과 안전한 가스사용을 위해 오는 25년까지 3년동안 1억원 상당을 투자해 공헌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사업내용으로는 노후 보일러 교체, 노후배관 교체공사, 노후가스렌지 교체공사, 가스타이머 록 설치 등 노후 가스시설 현대화와 사용시설 안전점검 등 물적·인적 재능나눔을 통한 사회공헌을 담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관심을 모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자체 후원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약 3,290세대(전국)의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능나눔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전북 도내에서는 전주, 군산, 익산의 독거노인과 완주의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한 바 있다.



가스공사협회회 김영태 회장은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가스시설의 개선으로 가스 안전이 취약한 세대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제영 전북회장도 "앞으로 우리 지역의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의 이같은 공헌활동이 늘어나야 한다"며 "지속적인 재능나눔과 기부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길 기대한다. 전북에서 사업을 크게 펼쳐 준 것에 감사한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재훈 기자

경로효친... 전북도,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전북도는 '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아 5일 전라북도청 공원에서 '노인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 사회의 경로효친 의식을 드높이고 노인의 권익 신장과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김관영 도지사,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서거석교무감을 비롯 대한노인회 김두봉 전라북도연합회장 등 도내 어르신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백문화예술단의 식전축하행사에 이어 평소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에 헌신한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공로 유공자 47명에 대해 전북도지사,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장, 자문위원장 포상이 수여됐다. 노인의 날 인 매년 10월 2일은 어를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시키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1997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며, UN에서도 1991년부터 매년 '세계 노인의 날(10.1)'을 지정 기념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행사를 맞아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장수군, 제27회 노인의 날 행사 개최

장수군이 제27회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6일부터 4읍·면별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각 읍면 분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노인의 날 행사는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표창해 어를 공경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6일 산서면을 시작으로 오는 19일까지 열린다. 올해 노인의 날 행사는 1부 기념행사와 2부 축하공연으로 나눠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롭게 행사를 구성했으며, 지역사회 노인복지 발전에 공헌한 시민들에게 모범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오재영 지회장은 "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 공경하는 마음과 각 계층이 서로 화합하며 행사를 즐겁게 즐길 수 있길 바라며, 항상 숭순수범하는 자세로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 지역에 귀감이 되는 어르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어르신들의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고품질 복지서비스 실현, 노인일자리 참여 확대 등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에 힘쓰겠다"며, "어르신들의 경로와 지혜를 배우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행사를 맞아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정읍경찰, 개인형이동장치·이륜차 법규위반 단속

정읍경찰서(서장 김합근)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예방 및 이륜차 운전자 보행자 등 교통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및 이륜차 대상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등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률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이용 연령대가 많은 관내 대학교 중·고교 일대, 학원가를 중심으로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나선 것이다. 청소년들 사이에 공유 PM(렌트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크게 높아질 뿐만 아니라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19세 이하 학생들 사고가 약 58%를 차지하는만큼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무면허, 승차 정원초과, 안전모 미착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김관근 정읍경찰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여와 반납이 자유로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며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태환 기자

장수 산서면, 7일 산서희망무지개축제 개최

장수군 산서면이 오는 7일 산서면 일원에서 민들들의 화합을 위한 산서희망무지개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산서희망무지개 축제는 산서면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농산물을 무지개색에 비유한 축제로 지역 주민들이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참여해 이뤄진다. 축막, 플라마켓, 산서이야기 마당 등 마을공동체 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주민 동아리 공연, 노래자랑 등 산서면의 특색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운영을 총괄하는 산서희망무지개 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방문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도 많이 준비했으며 많은 분들이 축제장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길환 산서면장은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산서희망무지개 축제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라며 "산서면민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한 만큼 사고 없이 안전하게 축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알림

제6회 전국실버가요제

- ▲일시: 10월 15일(일), 오전 10시
- ▲장소: 전주 덕진공원(남면의 광장)
- ▲주최: (사)한국문화예술진흥협회 전북본부
- ▲참가자격: 65세(만 64세 이상)
- ▲참가제한: 각종 가요제 대상(1등) 수상자 제외
- ▲문의: 063-231-6669, 010-7304-5665



부안군, 전북도 공무원 테마제안 금·은·동 석권

부안군이 지난 4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전북도 공무원 테마제안 본심사에서 금·은·동상을 석권하면서 그동안 강조해 온 자율행정의 성과가 빛났다. 이번 테마제안은 '더 특별한 더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한 특례 발굴'을 주제로 공모해 총 51건이 접수됐으며 접수된 제안 가운데 1차 실무심사를 통해 총 8건의 본심사대상을 확정했다. 본심사는 실현가능성·창의성·효과성·사건 온라인 심사 결과와 함께 발표상자를 진행해 우수 아이디어 6건(금상 1건, 은상 2건, 동상 3건)을 선정했으며 부안군은 금상을 비롯해 은상·동상을 모두 휩쓸면서 군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자율·적극행정의 효과를 입증했다. 심사 결과 산림정원과 신민경 주무관의 '보전산지의 변경·해제에 관한 특례'가 금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은상은 교육청소년과 이서영 주무관의 '신재생에너지 분야 보급사업에 관한 특례'가, 동상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임찬영 주무관의 '국제학교 설립 권한 위임 특례'가 각각 선정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대 전자공학부 김준범 박사, 경성대 교수 임용

전북대학교 전자공학부를 졸업한 김준범 박사가 최근 경성국립대학교 지능형통신공학과 조교수에 임용됐다. 5일 전북대에 따르면 김준범 박사는 2018년 전자공학부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 전자정보공학부에서 올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지난 8월까지 스웨덴 KTH 왕립공과대학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하며 유럽 ERC 지원의 대형 연구과제인 Sustainable Cyber-Physical Software-Defined System Slicing에 참여해 연구 역량을 쌓았다. 김 박사는 학위과정 동안 다수의 국가연구과제와 BK21 FOUR JIANT-IT인력양성사업단 및 지능형로봇연구소의 지원을 받았고, 박석환 지도교수와 울산과학기술원 이훈 교수의 공동 연구자로 하여 AI/ML 기반의 통신신호처리 최적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8편의 SCI 논문(1저자6편)과 25편의 국제 및 국내학회 논문을 발표했고, 7건의 특허를 출원 및 등록했다.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CPF) 장학 프로그램과 전북대 박사학위 연구자의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JBNU Post Doc. 지원사업'에 선정, 박사학위 취득을 6개월 앞둔 2022년 8월 스웨덴 KTH 왕립공과대학으로부터 다년 계약의 박사후연구원 제안을 받기도 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농악 경연대회 7일 개최

남원시 요천면 특설무대(요천 수경 음악분수대)에서 7일, 올해 23회째를 맞는 흥부골 남원농악경연대회가 (사)국가무형문화재 남원농악보존회 주관으로 열린다. 제1회 흥부제를 기념하기 위해 펼쳐지는 흥부골 이날 대회는 남원농악을 널리 알리고 위상을 제고하고 농악을 통한 읍면동 농악단 및 시민화합과 단합을 도모하는 취지로 펼쳐진다. 참가팀은 23개 읍면동 중 18팀이 오전 9팀 오후 9팀의 경연이 펼쳐지며, 축하공연으로 전년도 대상팀인 산내면 농악단이 공연할 예정이다. /남원=김기우 기자